

삼성SDI, 환경IT컨설팅 사업 진출

삼성 관계기업들과 공동 대응 ... 국제적 환경규제 준수 서비스 제공

삼성SDS는 11월21일 삼성지구환경연구소를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기업들과 공동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환경IT컨설팅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2008년 6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EU의 무역규제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삼성SDS는 환경규제 중 IT분과를 담당하면서 자체 연구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 말까지 관련 인력을 양성해 솔루션을 확보하는 등 사업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삼성SDS는 환경IT컨설팅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대응전략 수립부터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프로세스 재설계 컨설팅, 물질정보 표준화 및 ERP기반의 솔루션 구현에 이르기까지 토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SDS는 환경규제 토털서비스를 받은 고객사는 기존의 문서 작성 중심의 사후대응 전략에서 삼성SDS의 ERP기반의 통합규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의 ROI(투자수익률)를 높이고 사전관리 위주의 진보된 규제 대응 프로세스를 제공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SDS ERP컨설팅실 김명호 상무는 “환경규제 사업을 ERP사업의 연장선인 GRC(Governance · Risk management · Compliance)사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환경 · 회계 · 무역규제 · 내부통제 대응과 위험관리 및 통합대응 측면의 신규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2010년까지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가 68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국내 환경산업 시장 전체 규모가 2010년 약 33조원(3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1>